

광주 ‘누리예산’ 대책 없는 4월

교육청, 예산안 시의회 상정 안해...별도 편성 계획도 없어 3개월 한시조치 만료...유치원 운영비·임금 체불 불가피

광주시교육청이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 일정을 고려하면 유치원 4월 운영비 뿐 아니라 교사 임금 체불도 불가피했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60억원 상당의 4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 247회 시의회 임시회(17~29일)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아 유치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임시회 때 3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176억 3900만원 상당)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지역 유치원들에게 배정한 바 있다. 4월분 유치원 예산도 이번 임시회 때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제 때 지원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관련 예산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않은데다, 다음달 임시회(4월 27일~ 5월 11일) 전까지 별도의 예산 편성 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5월 초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전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 306개 유치원(공립 126·사립 180개)에 다니는 아이들 2만3907명의 4월분 교육비 뿐 아니라 25~29일 이뤄지는 교사 임금도 제 때 지급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과 연계될 경우 추경안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차 보육 대란’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시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 편성 계획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유치원 운영난, 교사 임금

체불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상 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육비를 배정(매월 10일 전후)하면 교육지원청을 통해 유치원으로 교부되고 유치원들은 운영비·급식비 등을 충당하고 교사 임금을 지급(25~29일)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뤄져왔다.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3개월치가 편성됐지만 카드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들어 4월까지 확보된 상태다.

한편, 광주시는 4월분 어린이집 보육료를 광주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한 상태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는 25일 개통을 앞둔 영광대교 모습. 영광군 흥농과 백수를 잇는 영광대교는 관광명소가 즐비한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제공>

흥농~백수 잇는 ‘영광대교’ 25일 개통

주탑 높이 108m 8년만에 완공...새 랜드마크 기대

서해 칠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영광 흥농과 백수를 잇는 영광대교가 25일 오후 2시 개통된다.

영광대교를 포함한 국도 77호선 흥농-백수 도로건설 공사는 눈앞에 두고도 바다 때문에 우회해야 했던 영광군 백수를 구수리와 흥농읍 칠곡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착공, 총사업비 729억원을 들여 사장교 방식인 해상교량 1개와 육상교량 2개 등 2.2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했다.

특히 해상에 신설된 길이 590m의 영광대교는 교량 상판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됐다.

이 방식으로 건설된 국내 사장교 중에는 주탑과 주탑 사이 주경간이 가장 긴 320m

■영광대교 위치도

흥농읍 칠곡리

사업구간 2204m

영광대교

백수를 구수리

영광 CC

법성포구

구암천

에 달해 다리 밑 법성포구를 드나드는 여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됐다.

백수 해안도로와 바닷가 절벽 등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고려해 주탑을 유선형 상

부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곡선형으로 건설했다.

주탑 높이도 인근 관광단지인 백제불교최초도래지의 역사 문화성을 반영해 108m로 세웠다.

교량이 건설된 영광 칠산 앞바다는 평소 바람이 심한 곳으로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무사히 공사를 마쳤다.

영광대교 개통으로 국도 77호선 해안도로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영광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백수해안도로, 가마미해수욕장,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수 익산국토청 도시시설국장은 “서남해안 해상교량을 주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년 무사고 택시 운전사 광주시 개인택시 양수 지원

수십년 무사고 경력을 쌓은 운전사들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이른바 양수(讓受)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가 포화상태여서 줄여야할 처지인데다 택시 운전사들의 꿈인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한 조치다.

지원방안은 운전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10배인 50억원을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개인택시 60대의 면허를 살 수 있는 규모다. 광주시는 대출이자의 1.5%가량을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사로 264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5
해질 18:45

달돋이 16:48
달질 05:14

포근한 오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2/16
목포	맑음	5/13	순천	맑음	7/17
여수	맑음	8/14	영광	맑음	1/15
나주	맑음	3/18	진도	맑음	3/14
완도	맑음	5/16	전주	맑음	3/17
구례	맑음	3/18	군산	맑음	2/14
강진	맑음	3/17	남원	맑음	2/18
해남	맑음	2/16	흑산도	맑음	5/11
장성	맑음	1/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5/19	5/16	3/14	2/14	2/14	3/15	4/15

판결 2제

여성 몰카범, 촬영 영상 유출 안해 ‘감형’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수차례 여성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

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씨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이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5년 6~8월 고흥의 버스터미널·PC방 등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 112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음란 손편지, 통신매체 이용 안해 ‘무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달리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피해자 집 앞에 직접 갖다놔다면 특례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12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한두 문장과 그림으로 된 편지를 자신의 원룸 옆방 문에 6차례 끼워 넣

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아 기소된 죄명으로는 현행 법상 처벌이 안 된다고 봤다.

이씨에게 적용된 특례법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직접’ 상대방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연합뉴스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접목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 재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허 단열창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수정 (주)

☎ 061-461-1800 H. 010-3631-0372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